

## 발포재활용협회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지명석)는 지난달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7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협회는 스티로폼 재활용 목표 71% 달성을 설정하고 지자체와의 재활용사업 협조, 재활용 사업자의 경쟁력 증대, 국민과 NGO를 대상으로 스티로폼 이미지 개선, 제품생산자의 재활용사업 대행, 정부와의 폐기물 관련정책 조정,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하이텍,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제조업체 6개사와 스티로폼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395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



고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 이후 다양한 재활용 촉진 활동을 통해 1994년 21%에 머물렀던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2007년 70%(잠정)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㉔

###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국가 환경데이터 양해각서 체결

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정광화)은 환경분야 표준물질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의 측정 분석 역량과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높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2월 14일 인천 경서동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서명·체결했다.

표준물질은 측정분석시 분석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기준물질로서, 환경측정 분석결과는 표준물질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동등성이 확인된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환경측정분석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토양 및 수질표준물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환경표준물질에 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표준물질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㉔